



동갑 내외 합동 회갑 축하예배 - 1957



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장 피선 축하 - 1957



원로목사 추대 - 1961



진주훈식(30주년) - 1958



기독교공보 지령 70호 기념 - 1963



한경직 목사 · 마삼락 선교사와 - 1965



저서(1955-1965)



총회장(葬) 영결식 - 1977

일제말엽 교회탄압

일어설교까지 강요 당해
선교사에게 철수령 내려

연동교회는 네번째 교회당(효제동 소재)을 일제의 압력에 의해 넘겨주고 연지동 구내 전도실로 옮겨왔다. 그러나 뒷좌석에 사복경찰이 입회한 가운데 예배시작 때 국민서사를 해야 하는 괴로운 나날이 또다시 계속됐다.

1942년에 이르러 설교를 일어(국어)로 진행하라는 강요에 따라 야간수업의 일어강습회가 생겨나기도 했다. 그 이듬해 총회의 지시에 의해 주일학교를 일요수련회로, 제직회를 연성회(練成會)로 명칭을 바꾸기까지 했다. 그들은 기도를 여호와 신에게 할 것이 아니라 일본 천조대신에게 할 것이며 성경보다는 천왕의 칙어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



제1회 일어강습회 수료기념 - 1942

의자에 앉은이 좌부터 : 김현숙 · 조형욱 · 진석오 · 전필순 · 윤봉선 · 최만길 · 김한성 · 나기환

1935년부터 시작된 신사참배와 1939년 종교단체법 제정 이후 선교사들이 추방당하기 시작했다. 1940년 10월 미국공사가 철수명령을 내려 선교사들은 1942년 6월까지 모두 부산항을 떠났다. 연동교회 옆 미국복장로교회 선교부 사택은 텅 비었다. 이때까지 연동교회는 그들 선교사들과 국적은 달라도 사업목적 하나를 가지고 동고동락하고 주일이면 그들 대부분의 선교사와 가족들이 대를 이어 연동교회에 출석하며 상부상조했었다. 1941년 이후 한국 장로교회는 70만명 교인수가 그 절반으로 감소했다.



한국을 떠나기로 결심한 선교사들 - 1941

조형욱 전도부인

가마 타고 다닌 조대비 후손 역대 목사 다섯분 모신 고참



주일학교 장년부 창경원 야유회(앞줄 ●표) - 1942

1929년 4월부터 1944년 3월까지 전도부인으로 헌신봉사하고 교회의 어머니로서도 소임을 다한 연동교회의 대표적인 전도인이었다.

1882년 2월 6일 서울에서 태어나 14세에 부평 이씨 가문으로 출가한 뒤 1909년(27세)부터 연동교회에 출석했다. 조대비(신정왕후)의 문중 후예로서 초창기에는 가마를 타고 다녔으며 1920년 5월 세례를 받은 이후 평양여자고등성경학교에 다녔다. '조부인'으로 통칭된 그는 언제나 비단옷을 곱게 입고 고고한 자세에 깔끔한 성격의 소유자였으나 어느 집 뒷마루에 앉아 전도할 때는 자상하고정이 넘치는 여인이었다.



공로 표창장과 상품(옷감)을 받은 기념(앞줄 ●표) - 1942

찬양대

재봉틀 빌려다 가운을 손수 만들어 하몬드오르간 설치 후 격이 높아져



1953년 필그림찬양단이 창립되면서 교회 찬양대가 크게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. 그러나 악보는 계속 원지에 써서 등사해냈다. 단골 제작자는 나기환 · 유덕희 · 황이연 집사였다. 그렇게 해서 1943년부터 1958년까지 만든 '성가선집'은 일곱 권이었다. (왼쪽 사진 : 연동역사관 소장)

1940 · 1950년대 찬양대 대장은 신태선 · 김종상 · 권길상 · 나기환,

지휘는 김형준 · 이흥열 · 신태선 · 홍금실 · 김성배 · 황재경 · 유덕희 · 나기환 집사였으며 반주는 유정순 · 유함숙 · 이성균 집사였는데 이때 대원은 50여명이었다.

1956년 초겨울 처음으로 가운을 입었다. 나기환 집사가 어느 교회에서 가운을 견본으로, 피어선에서 재봉틀을 빌려다가 부인(이옥영 집사)과 여집사들이 원단 값 7만8천원을 들여 만들었다. 이듬해 6월



찬양대원 및 주일학교 교사 일동(신태선 장로댁에서) - 1943
지휘 : 황재경 목사(흰 양복 앉은이)



찬양대원(선교부 앞에서) - 1946



성탄축하 음악예배를 마치고 - 1957